

해군 차기 구조함정, '광양함' 함명 제승한다



새 '광양함' 제원

- 배수량 4710t
- 길이 107m·폭 16.8m·높이 8m
- 최대 21노트(시속 39km)
- ※ 무인 수중탐사기·잠수장치 등 탑재



지난 31일 퇴역한 광양함

4710t 규모... 오는 6월 진수식

광양시 브랜드·위상 향상 기대

임진왜란·정유재란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최후 격전지인 '광양' 지명을 딴 함정(艦名)이 차기 함정에 계승됐다. 해군은 최근 오는 6월 진수될 예정인 차기 구조 전문함 이름을 '광양함'으로 결정했다. 그동안 광양시와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광양 해군전우회 등은 지난 31일 퇴역한 '광양함'에 이어 새로운 함정도 '광양함'으로 명명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옛 '광양함'(2400t)은 길이 86m·폭 15m·높이 5m 규모로 지난 1968년 영국 브루크마린사에서 건조됐으며 지난 1996년 8월 미국으로부터 인수받은 2척의 수상함 구조함(ATS) 중 하나이다. 수상함 구조함은 고장으로 움직일 수 없거나 좌초된 함정을 구조하고 침몰한 함정과 항공기 등을 탐색해 인양, 예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해군은 옛 '광양함'이 군함 수명주기 30년을 16년이나 초과하며 노후해 지난 31일 퇴역시켰다. 해군은 오는 6월에 차기 수상함 구조함 '광양함' 진수식을 갖는다. 새 '광양함'(4710t)은 길이 107m·폭 16.

8m·높이 8m 규모로 6000마력의 디젤엔진 4대를 갖춰 최대 21노트(시속 39km)의 속도로 운항할 수 있다. 특히 대형 함정 예인은 물론 갑판·잠수장치와 무인 수중 탐사기(ROV)를 탑재해 원활한 수중 구조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광양시는 지난 2000년 '광양함'과 자매결연을 한 후 지난 14년간 ▲광양함 견학 및 병영체험 6250명 ▲해군 의장대 및 군악대 초청 공연 4회 ▲광양시청 직원 광양함 도시기증 600권 ▲광양시라나눔 복지재단 성금기탁 200만원 등 다양한 교류협력 활동을 펼쳐왔다. 해군은 지난해 9월 '광양함' 퇴역을 앞두고 광양시민들의 사랑에 보답

하고자 함정 공개행사를 가진 바 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방부장관에게 '광양함' 명명의 필요성을 직접 설득하며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라며 "차기 '광양함'을 통해서 광양시와 지속적인 교류활동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지난 2013년 말 해군사령부를 방문해 차기 구조전함함이 '광양함'으로 재명명되도록 요청하고, 최근 국방부에도 건의서를 보내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며 "광양시 브랜드 향상과 대내외 위상에 영향을 클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남미 에콰도르 광양항에 2000만불 투자

파나마 등 방문... 투자 유치 농수산물 수출입 활성화 기대

광양시가 남미 에콰도르와 손을 잡고 광양항 개발과 농·수산물 교역확대에 나선다. 광양시와 에콰도르 나트프레스코사는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에 2년 내에 2000만 달러를 투자해 냉동냉장 창고를 건립하기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또 항만개발 등 SOC(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에 지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 또한 정 시장은 파나마를 방문해 광양

시 우호도시인 파나마시티의 호세블란돈 시장과 면담을 갖고 파나마시티와 광양시 간 국제교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파나마 현지 선·화주 및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광양항 홍보 설명회를 마련했다. 광양시는 이달 중순께 주한 에콰도르 대사관과 공동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지역 언론인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광양시 이병철 경제복지국장은 "이번 방문으로 에콰도르 배나나의 성공적인 국내 유통을 견인하고, 장기적으로 전남 지역의 농·수산물, 공산품들이 광양항을 통해 남미로 수출·입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中~日 컨테이너선 3개 항로 신설

연간 3만5000TEU 물량처리

광양에서 중국과 일본을 서비스하는 3개의 컨테이너선 신규 항로가 개설됐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 30일 새로 기항한 'KJCG(Korea Japan Xgg) 서비스'는 고려해운, 흥야해운이 공동 운항하는 서비스이다. 1100TEU(1TEU= 20피트 컨테이너 1대)급 2척을 투입해, 광양~신강~부산~이시카리~홋카이도 무로란(室蘭)을 왕래하며 연간 8000TEU의 물량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31일 신규 입항한 'KCM2(Korea China Malaysia) 서비스'는 고려해운, TSL라인, COSCO, CNC가 공동 운항하는 서비스로, 광양~상하이~홍콩~선

전~페낭~싱가포르~홍콩~칭다오~부산을 왕래하며 연간 2만TEU를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일에는 판오선에서 'NBQ(New Busan Qingdao) 서비스'를 투입,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갔다. 702TEU급으로 광양~칭다오~부산을 왕래하며 연간 5000TEU의 물량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승정의 마케팅 팀장은 "최근 베트남, 러시아에 이어 이번 중국, 일본을 서비스하는 신규 3항차 유치로 연간 3만 5000TEU의 물량 증가가 예상돼 올해 주당 목표인 85항차를 조기에 달성하게 됐다"며 "올해 목표 물량 250만TEU 달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만권 행정협의회 내일 여수서 여수공항 지원 등 상생협력 논의

시장·국회의원 등 7명 참석

광양만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출범한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가 4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제21차 정기회의 및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철현 여수시장, 조충훈 순천시장, 정현복 광양시장 등과 함께 여수 주승용·김성근 의원, 순천 이정현

의원, 광양 우윤근 의원 등 모두 7명의 인사가 참석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3개 시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올해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협의회는 회의에 상정한 12개 안건 가운데 3개시 광역관광 활성화, 여수공항 활성화 지원 공동 대응 등 굵직한 6개 사업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를 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이순신대교) 국도승격 문제, 화대~백야 연륙·연도교 가설 등 9건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상생협력과 대응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광양만권 행정협의회는 광양만권 도시들의 상생발전을 위한 취지로 지난 1985년 5월 지방자치법령에 근거해 발족

했다. 광양만권 발전과 관련한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냈으나 지난 2007년 11월 제19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잠정 중단됐다. 민선 6기 출범을 맞아 광양만권 공동 현안들을 함께 해결하자는데 뜻을 모으면서 7년만인 지난해 12월 광양시에서 제20회 행정협의회가 재개됐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2017년까지 진상면·다압면 상수도 공급

광양시는 주민생활 편의 증대와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농촌마을 지방상수도 공급을 확대한다. 시는 그동안 생활기반시설이 열악한 농촌 주민에게까지 맑고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996년 진월면의 지방상수도 사업을 시작으로 봉강면, 옥곡면, 진상면 등 일부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해왔다. 또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봉강·옥룡·진월면 17개 마을 871가구를 대상으로 84억원을 투입해 송·배수관 33.4km 매설을 마무리했다.

올해는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진상·다압면 18개 마을의 1032가구를 대상으로 106억원을 들여 송·배수관 55km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94.1%에서 95.7%로 상승해 전남도 평균 보급률 89.1%를 웃돌게 될 전망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현재 계곡물을 이용하는 산간·농촌 마을까지 지방상수도를 공급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공중위생 수준을 높이는 등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지역지사 (061)

광신	062)944-0444	남원시	063)626-160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율보급소	02)313-5962

시내지역

광천	366-8375	광남	222-9440
남부	66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6
봉선	676-5530	북광주	525-378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683
송하	676-6605	신안	512-1732
양산	671-7658	오치	266-7601
용봉	522-7752	우봉	512-8116
운천	371-8818	월곡	961-2339
중암	222-1896	중양	224-6604
진월	673-1500	침단	673-2900
창평	224-8212	치평	376-6511
풍암	682-8112	하남	969-1500
화정	375-6662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